

自然言語와 人工言語

컴퓨터 이야기를 하다가 自然言語(Natural Language)라는 말이 나오면 일반인들은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언어라면 보통 언어일텐데 구태여 자연언어라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반되는 의미의 人工言語(Artificial Language)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여야한다. 컴퓨터가 개발된 후 컴퓨터에게 편하게 일을 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래머들이 언어의 규칙들을 文法化하여 「프로그래밍언어」또는 「컴퓨터언어」를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언어들을 인공언어라고하면 무리는 없을 것이다. 코볼(COBOL), 포트란(FORTRAN), 베이직(BASIC) 등이 바로 인공언어, 즉 컴퓨터 언어의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힐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인공적인 언어가 소프트웨어를 모르는 사람은 쓰기가 매우 불편하여 보통 우리가 쓰는 언어 즉 자연언어에 의하여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정보화사회가 보다 빨리, 보다 쉽게 도래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의 연구가 人工知能(Artificial Intelligence) 실용화개발의 한분야로 추진되고 있다.

다시말하면 일상 우리가 쓰는 자연언어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音聲認識 음성합성의 연구도 함께 수행



이기식
한국전산연구원

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선보이기 시작한 것이 컴퓨터에 의한 번역시스템이다. 英語, 中國語, 獨語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한글로 번역이 되고 이의 반대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1백% 완전한 번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先編輯(Pre-edit) 또는 후편집(Post-edit)을 함으로써 비로소 훌륭한 번역결과를 만들어 내는 단계에 와있다. 현재는 불완전한 번역을 해주는시스템이 상품화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겠다.

마치 인간의 지능이 어릴 때는 불완전하면서도 인간대접을 받고 점차 지능적으로 성숙되어가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인간의 성장과정과 흡사한 과정을 밟고 있다.

사람의 知能指數에 개인차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의 인공지능형 소프트웨어들도 이것은 知能指數 1백50짜리, 저것은 2백짜리 등으로 말해지지 않을까 궁금하다.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우리들은 새로운 개념과 인식을 가져야 할 것 같다. 文化가 시작된 이래 인간이 부단히 노력한 것은 인간지적능력의 확대에 있었고 近世에와서는 컴퓨터가 가장 큰역할을 해주었다.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量의 情報를 우리의 지적능력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번역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할수록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